KISTEP 수요포럼 2019.4.10. 수요일

인구절벽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 방향 모색

최항섭

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

E-mail: jesuishs@kookmin.ac.kr, +82-2-910-4471

-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
- 인구절벽은 한국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다
- 정부는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

- 줄어든 사실 자체보다 그 모습이 더 문제다
- 고령화가 문제다
 - 왜, 고령화가 문제인가?
 - 고령이 될 수록 미래불안 증가로 소비축소
 - ✔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증가로 이어질 것
 - 의료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생산능력저하발생
 - √창의적 능력이 더 필요한 데, 이것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짐

- 줄어든 사실 자체보다 그 모습이 더 문제다
-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이 되는 것이 문제
 - 왜,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가?
 -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해도 가족형성유지 경우에 비해 소비가 크게 감소(교육,보험,주택,식품,관광 등)
 - ✓ 가족중심으로 구조화된 경제구조의 해체 시작
 -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독, 소외를 경험
 - ✔ 자살, 우울증, 사회관계 부적응 등 사회적 비용 크게 발생

-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?
- 미래의 한국은 더 괴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
 - 소비가 안되는 한국은 경제가 쇠퇴할 것
 - 경제강국의 꿈은 사라질 것임
 - 고령인구부양으로 청년 삶 더욱 어려움
 - 고령자취업으로 청년취업과 충돌함
 - 우울증, 자살율 OECD 1위 지속

인구절벽에 대응하는 2가지 접근방식

1. 목적 달성(Goal Attainment) 방식

- 인구 5000만 유지를 목표
 - 최악의 경우 4500만 유지(2018년 4875만명)
- 메이킹(Making) 정책, 설득(Persuading)정책
 - 결혼을 하게 하는 정책
 -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

인구절벽에 대응하는 2가지 접근방식

2. 적응(Adaptation) 방식

- 비가역적 상황(irreversible situation)에 적응 우선시
 - 결국 4000만의 사회가 될 것임(2060-70년도)
- 셋팅(Setting)정책
 - 이 상황을 예정하고 미리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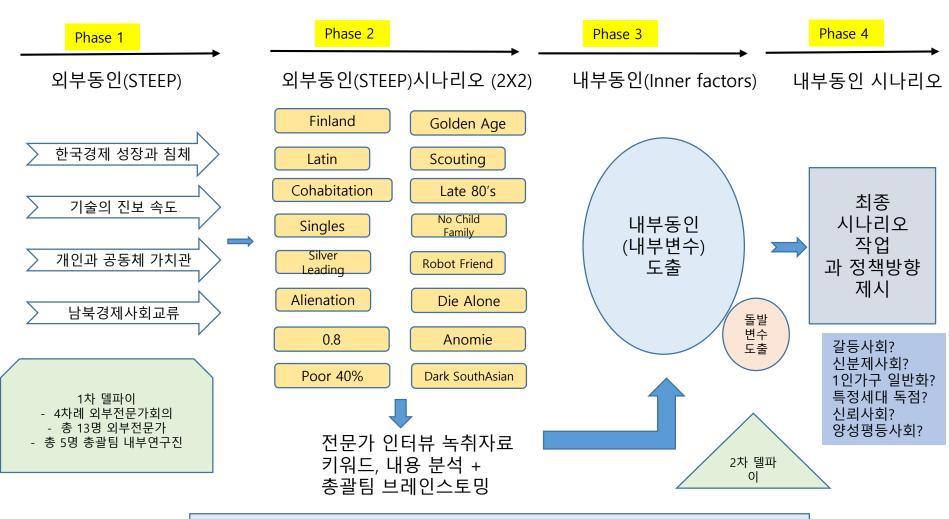
목적달성 중심 대응의 현재 성과

152조원

1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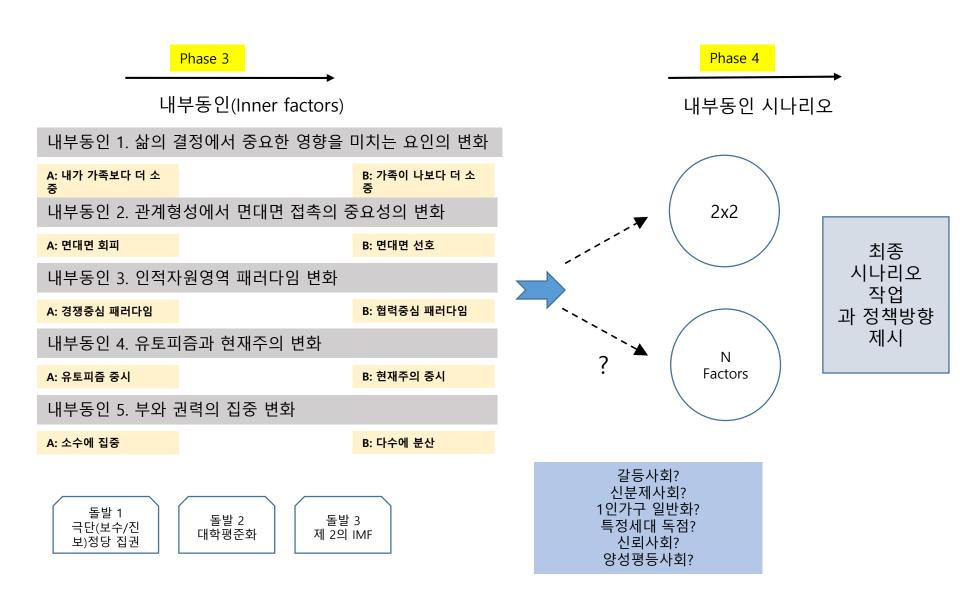
0.97

인구사회 미래 시나리오 2050, 국회미래연구원(연구책임: 최항섭, 2018)



인구감소폭 여부, 저출산고령화지속여부, 1인가구증가여부, 교육 등

인구사회 미래 시나리오 2050, 국회미래연구원(연구책임: 최항섭, 2018)



인구사회 미래 시나리오 2050, 국회미래연구원(연구책임: 최항섭, 2018)

The Most Probable Future Scenario

" Leave Me Alone!! "

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 면대면회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기존 사회규범들 가치 하락

인구절벽과 대응방향의 변화

-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
 - 목표달성(Goal Attainment) 패러다임과 동시에 적응(Adaption) 패러다임을 함께 채택해야 함
- 결국 핵심은 인구절벽사회라는 미래사회환
 경에서 살아가는
 -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감
 - 이 행복감은 삶의 질에 의해 크게 결정

인구절벽과 삶의 질의 조건

- 1) 경제적 조건
 - 급여, 이윤 등을 통해 결정(직장, 사업체 등)
 - ✓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루어짐
 - 그런데 인구절벽시대 재화와 서비스 소비자?
 - ✔ 고령자들과 혼자 사는 사람들
 - 경제적 조건의 전망은 어두움

인구절벽과 삶의 질의 조건

- 2) 육체정신적 조건
 - 육체의 건강: 의료기술,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직접 적 영향받음
 - 생산가능 능력 지속연수 증가
 - 정신의 건강: 사회문화에 의해 영향
 - 쉽게 변화되기 어려움(경쟁사회, 갑질사회 등)
 - 육체적 조건의 전망은 밝으나 정신적 조건의 전망 은 어두움

인구절벽과 삶의 질의 조건

- 3) 사회관계적 조건
 -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감정적 안정감, 자긍심존재감 등이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
 - 그러나 미래사회는 면대면 회피의 Leave Me Alone 사회로
 - 사회관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
 - 사회관계적 조건의 전망은 대단히 어두움

인구절벽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해답은?

- 수많은 제도들의 도입과 아직 미미한 효과
 - 소득주도성장 정책
 - 고령자 돌봄 정책
 - 1인가구 지원 정책
- 이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시대 삶의 질은 과연 나아질 것인가?

하나의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

- 기술과 사회의 상호구성성
 - 기술은 사회에 의해 구성되고, 사회는 기술에의해 구성된다
- 하나의 작은 기술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 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

인구절벽 적응, 삶의 질, 과학기술 가능성

- 경제적 조건 :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
 - AI 로봇(?) : 생산은 대체하지만 소비하지 않음
 - 한편, 인간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지 못함
 - 빅데이터의 소비 증가에의 기여 모색
 - ✔디지털자본주의의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(없는 욕구를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비판)
 - ✓ 인간의 삶에서 그 결과를 봐야 함
 - 새로운 필요에 대한 욕구는 소비로 이어지며, 소비의 결과를 통한 욕구 해소는 행복감

인구절벽 적응, 삶의 질, 과학기술 가능성

- 육체정신적 조건 : 경쟁과 갈등 극복
 - 인간간의 갈등 유발 요소에 대한 기술의 논리적 조정
 - ✔공정성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(보다 정확한 판정 등)
 - 업무의 특성에 따른 기술과 인간의 분업화
 - ✔경쟁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기술을 통해
 - ✓ 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인간들을 통해
 - 협업을 통한 창의적 가치, 그리고 통합의 가치 발생

인구절벽 적응, 삶의 질, 과학기술 가능성

- 사회관계적 조건 : 고독과 소외의 문제
 - 면대면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
 - ✓ 점점 고독과 소외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증가
 -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색
 - ✓ 인간들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다면, 인간과 기계간의 관계를 구축
 - 기계는 사회관계를 위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만, 기계의 이런 특성과 관계없이 인간은 그 사회관계에 가치부여
 - 가상적 인간(virtual person)과의 관계를 통한 고독과 소외 대응

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도전

- 사회문제를 행정, 복지 정책 들 등 사회적 수단 으로만 해결할 수 없게 됨
 - 사회문제가 기술과 이미 밀접하게 얽힌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
-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
-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한 행정계의 터부시, 기 술계의 소극적 대응

기술과 사회

- 기술은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임
 - 기술은 상품을 넘어 사회정책의 잠재력을 내재
- 인구절벽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사회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"과학기술의 역할이 거의 결 정적"이라 할 수 있음